

“과잉정치화”: 한국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Over-politicization”: Korean Style of Social Communication

박승관_서울대학교

Park, Sung Gwan_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박승관 교수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서 발표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김홍우 선생님께서 직접 연락을 하셔서 발표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언론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홍우 선생님께서 발표하신다기에 저는 대신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홍우 선생님께서는 제가 가는 데마다 오셔서 코멘트하시면서 ‘쫄크’를 주곤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뭘 하면 ‘쫄크’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못한다고 했습니다.

김홍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금 더 할애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안 하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언론에 대해 그만큼 이야기하는 학회를 만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 이 글은 박승관 교수님께서 2012년 한국정치평론학회 주최 언론기회 학술회의에서 논평하신 내용을 트랜스크립트한 것이다. 한국정치평론학회 편집부는 이 글이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진단하는데 여전히 유용한 통찰을 제공해준다고 판단해서 출간을 결정했다. 당시 학술회의 주제는 “자유언론과 민주주의 동학”이었고, 박승관 교수님께서 참여하신 세션의 주제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이었다. 발표자는 김재홍(경기대), 김종철(한겨레신문사), 김홍우(서울대)였고, 토론자는 홍진표(국가위원회), 안형환(새누리당), 박승관(서울대)이었다. 김재홍과 김홍우의 발표문은 다음 책에 수록되었다. 김재홍, “언론자유와 상대성에 관한 고찰: 학문·사상·양심의 자유, 그리고 언론시장의 독과점 방지와 관련하여,” 한국정치평론학회 편,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그리고 그 위기』(인간사랑, 2013), pp. 343-362. 김홍우, “언론의 위기에 대한 고찰,” 같은 책, pp. 11-21. 이곳에 논평을 수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박승관 교수님, 트랜스크립트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경희대 공공대학원 석사과정의 이해인 학생에게 각각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편집자.

그래서 그만큼 새롭고 제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선생님만 발표하시게끔 하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우 선생님 발표문은 5페이지 밖에 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이 정치사상과 철학을 공부하시면서 언론을 우려하시는 글을 쓰셨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제기하신 문제가 다산 정약용이 나오고 도스토예프스키의 다성학적 소설책에 대한 언급을 중심으로 삼으면서, 제도 언론이 생활 세계 언론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석에는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다성학적 글쓰기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저는 러시아 문학을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도스토예프스키의 글을 읽어보면 바흐친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그 때마다 주인공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연설을 하는 데, 그것을 매우 다양한 주제로 각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하는 소설 구조를, 이는 매우 독립적인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을 보면 다성학적 구조를 가지면서도 매우 엄밀하게 짜여진, 궁극적으로는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의 매우 강한 통합력, 통합성 있는 메시지를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러시아 문학가이지만 제가 보기에 단성학적 구조를 지닙니다. 자기가 뭐 다 설명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저작이 『전쟁과 평화』 같은 것인데, 『전쟁과 평화』는 확실히 단성학적 구조이고, 거기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나폴레옹을 비난하고 깔보고 하는 모든 러시아 전쟁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논문도 쓰고 다 합니다. 또 한 사람 언급하고 싶은 게 빅토르 위고인데, 빅토르 위고도 단성학적 구조입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씁니다. 대표저작이 『레미제라블』, 『파리의 노트르담』 같은 것입니다. 대신에 빅토르 위고도 거기에서 다양한, 수없이 많은 주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논문을 쓰고, 소설을 쓰다가 멈추고, 갑자기 역사 논문을 쓰고, 사회 비판 논문을 쓰고, 문화 비평을 하고, 파리의 깡패들 문화, 지하 세계에 대한 정리를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각자 소설 전체적 통합성을 해치면서까지 많은 주제들을 연구하는 데, 결국은 혼자 다하는 거예요. 단성학적 구조와 다성학적 구조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텅 빈 저자 대신에 궁극적으로 강한 통합력이 있는 화음

오케스트라가 보이고, 톨스토이나 빅토르 위고에서는 반대로 혼자 연주를 다 하는 데, 마찬가지로 도스토예프스키를 능가하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이슈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령 김홍우 선생님께서는 처칠과 케인즈와 한국의 정약용을 들어서 한국 언론의 폐해를 말씀하시잖습니까? 언론이 정치인을 깔보고, 이미지로 대중을 현혹해서 전쟁에서 지게 만든 것이다. 또, 다산은 언론과 대관이 언론을 독점해서 다른 목소리를 전부 죽임으로써 실제로 살아있는 언론을 해체시켰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도스토예프스키의 다성학적으로 가야하고, 언론이 독점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제가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그 말씀은 옳지만, 한 가지 어떤 질문이 가능하냐면 ‘다성학적 구조여야만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다양한 목소리와 이런 구조의 당연성이 보장되느냐?’ ‘도스토예프스키적인 것이어야만 되겠느냐?’ 도스토예프스키적인 것에서는 저자가 소멸하고 주인공만 살아남습니다. 마치 그렇게 되어야 하고, 다산 정약용도 언론을 없애버리면 언론이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매우 우려스럽고 보장되지 않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단성학적 구조, 즉 주인공(저자)이 뚜렷하면서도 도스토예프스키나 빅토르 위고처럼 다양한 관점과 주제에 대한 열린 복합적 소설 체계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다산을 높이 평가하지만 이 부분은 그 당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산 정약용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언론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국의 언론은 해체의 대상이냐? 그것이 아니고 언론을 살리면서도 복합적인 목소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착상은 매우 훌륭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의 ‘폴리포니’(polyphony)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김홍우적 ‘모노포니’(monophony)로 강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김홍우 선생님의 패리독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항상 모든 사람이 발언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모든 사람을 ‘쫓크’주는 그러한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단성학적, 지배자적 군림의 체계를 벗어나는 것이

김홍우적 패러독스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홍우 가는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욱먹지 않을 언론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언론에 대해서도 기존의 언론을 해체하거나 붕괴하거나 불신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리느냐, 어디에 길이 있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도 중요하지만, 톨스토이나 빅토르 위고도 중요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여전히 김홍우 선생님이 제기하고, 발제자, 토론자들이 지적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한국 현실 언론이 지나치게, 정말 지나치게 ‘과잉정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정치인지, 아니면 정치로부터 분리된 자기 전문성을 가진 독립된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대라는 것은 각각의 영역이 국가 독점체계, 왕정 체계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 양심의 독자적 원리와 논리와 매커니즘에 의해 분화된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왕정 정치의 유산이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이 정치로 수렴되고, 국가로 수렴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계, 기존의 다른 전문직종이 전부 유사한 사정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언론이 스스로 국가를 경영해야겠다, 자기 식으로 경영해야 하겠다, 자기가 국가를 기획하고 관리해야겠다, 내가 대통령을 뽑아야겠다, 일반 국민이나 정치 세계는(아까 안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해주어야만 되겠다, 이러한 고집과 과잉 고려로써 언론은 일반 시민들에게 정치를 맡겨두지 못하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가벼움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지나친 애국주의, 이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라보고, 지켜보고, 놔두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지게 하는 그런 장치로 언론이 재편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학의 교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본연의 자리로, 자기 집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공고히 되어야지, 자기가 국가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좌지우지함으로써 자기를 공고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 언론이 근본적으로 위기에 봉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프먼이라는 사람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리프먼은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박사학위도 취득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출마를 하거나, 공직, 대학교수직을 맡지 않고 끝까지 언론인으로 남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미국 언론에 대해서 우려하고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리프먼의 잊을 수 없는 공적(功績)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자기 제도를 그 사람만큼 철저히 비판하면서도 철저히 사랑하고 떠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언론은 실패하고 있으며, 실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매우 비관적이고 독설적인 비판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제도에 하면서도 끝까지 언론인으로 남은 사람입니다. 리프먼 본인이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거든요. 독일의 선전 작업의 폐해를 누구보다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언론이란, 과잉 정치 몰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전문직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전문직을 정치와 국가와 중앙 정치로부터 독립된 어떤 인스티튜션(institution)으로, 독립된 제도로써 확립해야만 언론도 살아남고, 미국 민주주의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리프먼의 주장입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언론의 소유구조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홍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소유주의 영향력과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경영권과 편집권을 가진 언론으로 재편됨으로써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언론인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진작시키고 수용하고 전달하는 열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론이 살아있으면서도 ‘모노포니’가 아니고 ‘폴리포니’로 가는 것을 보도할 수 있는 제도로써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국 언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실현되지 않으면, 지금 전개되는 상황처럼 SNS나 뉴미디어에 의해서 기존 언론의 권위나 지도력이나 역할이 심대하게 훼손되거나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이 소멸될 대상이라기보다, 건강하게 되고 재편되고 자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대학도, 지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